

중국 스마트폰산업의 글로벌 도약 전망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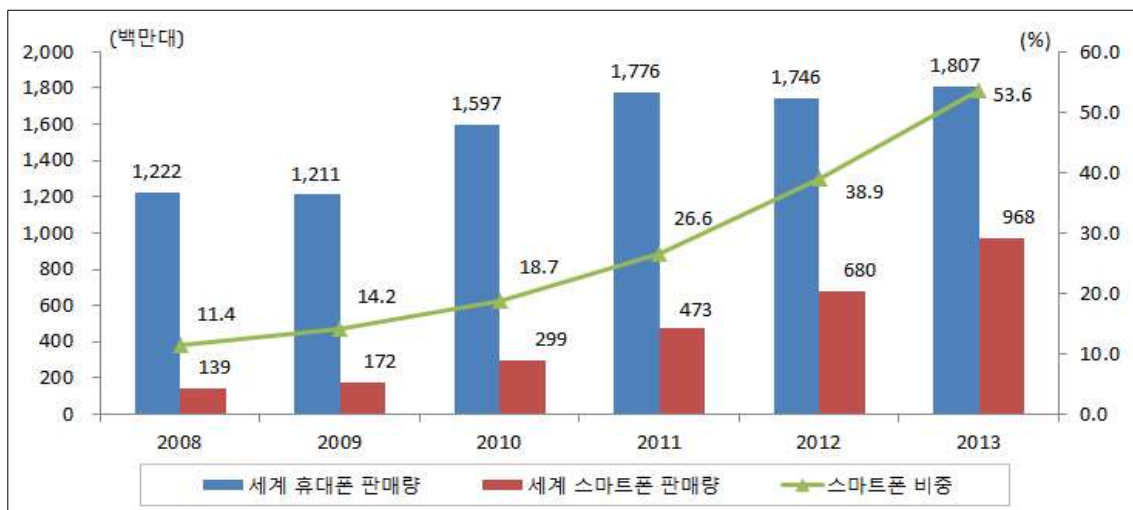
< 요약 >

- 스마트폰 제조업체 최다 보유국인 중국은 2013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국가기준 점유율 2위로 급상승하며 한국을 빠르게 추격
 -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는 2011년 7% 비중에서 2년 만에 28%로 확대되고, 중국에서는 2013년 65% 비중으로 1위 도약
- 중국 스마트폰의 급성장세는 세계최대인 자국시장의 성장에 의존한 것이지만, 가격우위를 갖춘 제조역량, 안정된 부품조달체계, 통신장비·PC분야와의 시너지, 정부 지원책도 기인
 - 중국은 스마트폰부품의 1차 공급지로서 부품의 내재화율이 높고, TD-LTE 등 중국 주도의 이동통신 핵심기술과 표준을 확보하며 성장중
 - 스마트폰 후발주자 중국은 현 성장속도와 중국업체들의 스마트폰 생산 전망에 기초할 때 2016년에 스마트폰 점유율 1위 확보가 가능할 전망
-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고 차기 스마트폰 시장 주도를 위해서는 기술 및 제품 차별화 전략 강화가 시급
- 포스트 스마트화 및 초연결 시대에 대비하여 유망 핵심부품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수출확대를 위한 민·관의 전략적 투자 강화가 필요
 - 스마트폰의 해외생산이 확대되면서 스마트폰용 부품이 전체 스마트폰 수출을 견인하고 있어, 완제품을 대체하는 부품수출 확대 전략 필요
- 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시대에 요구되는 웨어러블 스마트기기 등 차세대 단말의 핵심기술과 시장 주도를 위한 발전전략 마련 필요

□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신흥국에 힘입어 성장하나 고성장 기조는 축소

-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성숙기의 선진국 보다 보급률이 낮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
-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2008년부터 연평균 47.9%씩 고성장하여 2013년 9.7억대에 이르면서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53.6%를 차지
- 선진시장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약 70%로 높아지면서 성장세 둔화를 보이거나, 신흥시장은 중저가 스마트폰 수요가 지속 확대될 전망
- 스마트폰 출하량(억대, 2012→2017) : 신흥국 4.3 → 11.2, 선진국 3.0 → 4.7

<그림 1> 세계 스마트폰 시장 현황



자료 : Gartner(2014.3) 자료 참조

-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양강(삼성·애플)구도로 전개되고 있으며, 3위권에 중국업체들이 포진
- 2013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이 31% 점유율로 1위, 애플이 2위(15.6%)인 한편, 화웨이(4.8%)와 레노버(4.5%)가 빅5에 진입
- 노키아, 블랙베리, HTC, 모토로라 등 기존 스마트폰 강자들의 부

진이 지속되는 반면, 중국 스마트폰업체들은 꾸준히 성장세 시현

<표 1>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업체별 점유율 추이

단위 : %

순위	업체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1	삼성전자	31.0	30.3	18.7	8.5	3.4	3.4
2	애플	15.6	19.1	18.9	15.6	14.4	8.2
3	화웨이*	4.8	4.0	3.3	0.1	0.0	-
4	LG전자	4.8	3.8	4.0	1.9	0.3	0.1
5	레노버*	4.5	3.2	0.3	0.1	0.0	0.1
6	ZTE*	3.9	3.9	2.2	0.1	-	-
7	소니모바일	3.8	3.6	4.2	3.4	0.8	1.7
8	위룽(쿨패드)*	3.3	2.4	0.8	0.4	-	-
9	노키아	3.1	5.8	17.9	34.2	41.1	43.7
10	HTC	2.2	4.7	9.1	8.2	6.3	4.7
	중국 합계	16.2	13.5	6.6	0.7	-	-

자료 : Gartner(2014.2), *는 중국업체

□ 중국내 4G 스마트폰 수요는 금년 4분기부터 확대될 전망

- 중국의 전체 휴대폰 사용자는 2014년 3월 약 12억 4,843만명(보급률 91.7%)에 이르고, 이중에서 3G폰 사용자는 35.6%의 비중을 차지
 - 중국은 2G폰 사용자 비중이 약 63%로 여전히 높지만 감소 추세에 있고, 최근 3G폰 특히 스마트폰 사용자가 빠르게 확대중
- 중국 휴대폰 시장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약 7.3%에서 2013년 약 76%로 거의 수직 상승 추세
 - 저가 보급형 제품 중심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2012년 2.6억대에 서 2013년 전년대비 73.1% 증가한 약 4.5억대 규모로 증가 추정
 - 세계 스마트폰 시장(판매량 기준)에서 중국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약 9%에서 2013년 34%를 상회
- 중국은 작년 말 TD-LTE 상용서비스를 시작으로 금년부터 4G 시장이

본격 성장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수요가 점차 확대될 전망

- 현재 중국 4G 시장은 높은 요금제, 3G 보다 낮은 보조금과 디바이스 부족 등으로 성장세가 더디지만, 4분기부터는 수요가 확대될 전망
 - 중국 4G 서비스는 차이나모바일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지만, 하반기에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도 본격 가세할 전망¹⁾
- 한편 후지키메라 총연(2014.3)에 의하면, 2014년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4G 서비스 확산에 힘입어 약 5.5억대 규모로 성장할 전망
- 중국 4G 서비스 본격화는 세계 LTE시장 성장에 기여하는 한편, 최대의 중국 4G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업체간 경쟁도 심화될 전망

<표 2> 주요 기술별 중국 휴대폰 시장규모 전망

단위 : 십만대,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CAGR ('13~'18)
2~2.5 세대	GSM	20	-	-	-	-	-	-	-
	EDGE	1,201	828	448	271	161	46	24	-50.9
	GPRS	366	44	22	-	-	-	-	-
3~3.5 세대	CDMA 2000 1x	102	44	22	-	-	-	-	-
	CDMA EV-DO	20	-	-	-	-	-	-	-
	CDMA EVDO Rev A	549	675	718	587	460	230	141	-26.9
	W-CDMA	41	22	-	-	-	-	-	-
	HSXPA	1,079	1,094	1,390	1,309	1,128	1,242	1,154	1.1
	TD-SCDMA	651	1,394	1,121	993	552	322	94	-41.7
3.9~4 세대	LTE	41	240	314	451	920	1,150	1,413	42.6
	TD-LTE	-	17	448	903	1,381	1,610	1,884	155.1

자료 : Gartner(2014.3) 자료 참조 산업연구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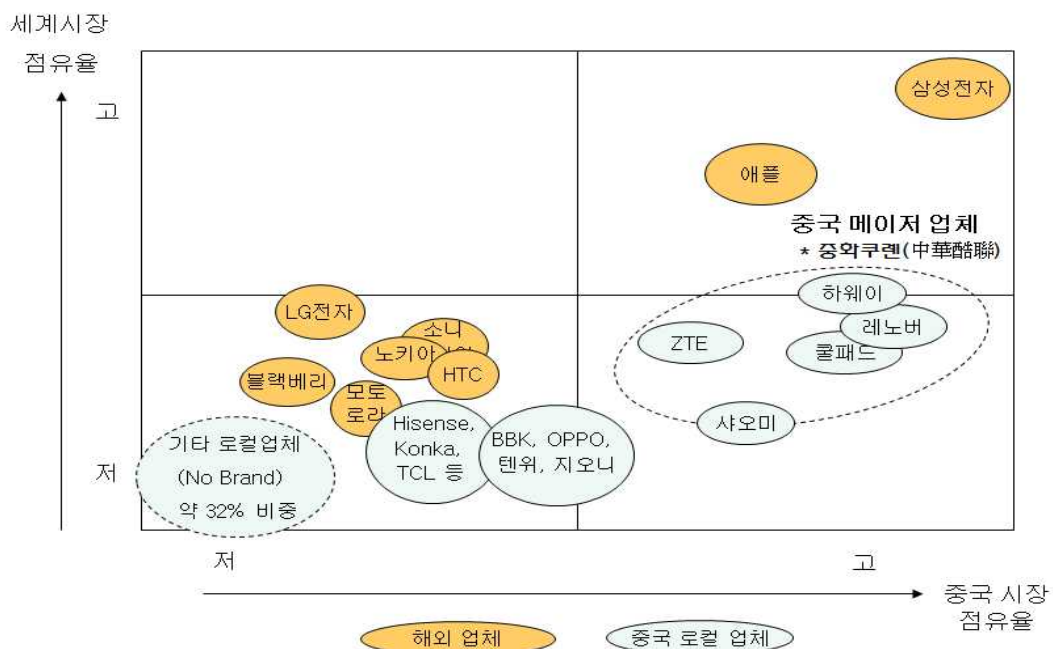
□ 자국시장을 발판으로 성장한 세계 2위 중국, 글로벌 진출 본격화 예고

-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로컬 브랜드는 2010년 약 8%의 점유율을 차지했으나 2013년 65% 정도로 상승하며 1위로 도약

1) 현재 3개 이동사에 TD-LTE(시분할방식) 면허가 발급되었고, 하반기에 또다른 LTE 표준인 LTE-FDD(주파수분할방식) 면허가 발급될 전망이다. 향후 차이나텔레콤은 LTE-FDD와 TD-LTE 서비스를 병행하고, 차이나유니콤은 HSPA+를 FDD를 중심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임.

- 중국내에서 자국 브랜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독자 기술인 3G TD-SCDMA지원 단말의 경우 중국 브랜드가 90%를 상회
 - 3G WCDMA폰의 55%, CDMA2000폰의 약 73%가 중국 브랜드
 - 중국내 로컬 휴대폰 관심도(ZDC) : 14.5%('11) → 44.5%('14.1Q)
- 최근 화웨이, 레노버, 쿠파드, ZTE 등 메이저 휴대폰업체와 샤오미, 오포, BBK 등 다수의 중견·중소업체들이 경쟁하며 급발전 추세
- 2013년 중국 스마트폰시장에서 삼성이 1위(점유율 17.3%)를 차지하고 있지만, Top 10위에 8개 중국업체들이 51.4% 점유율을 차지하며 포진
- 애플은 중국시장에서 금년 1분기 차이나모바일을 통해 고급형외에 보급형 제품(아이폰5C)을 최초 출시하며 시장점유율이 소폭 상승
- 4G 시대가 개막된 중국에서 LTE 경쟁력을 확보한 국내업체들의 선전이 예상되나,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업체와의 경쟁은 치열할 전망

<그림 3> 세계 및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요 업체간 경쟁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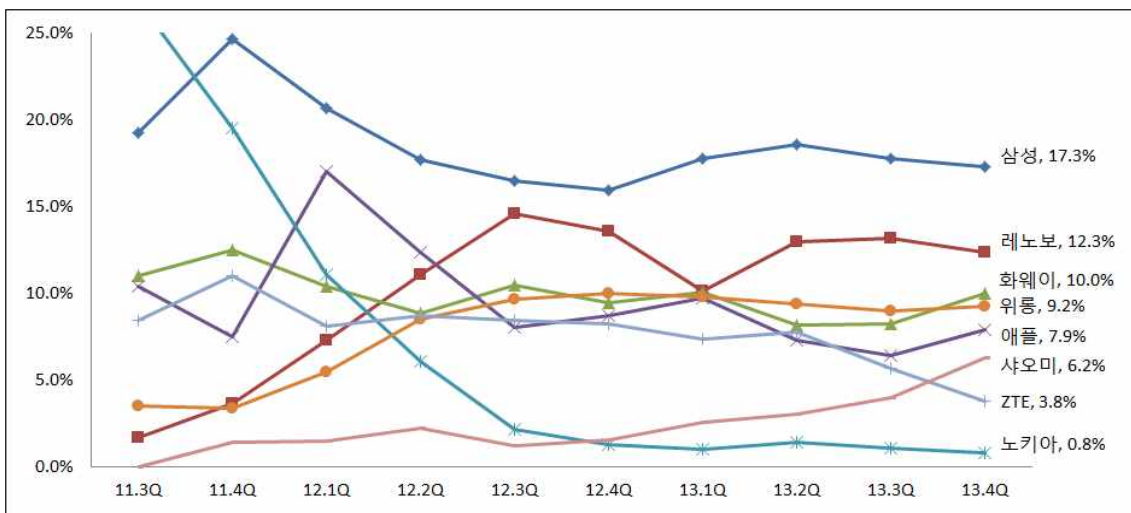


자료 : 산업연구원

○ 이러한 중국업체들의 입지 상승 추세는 평균 소득수준이 낮은 중국시장에서 로컬업체들의 중저가폰 경쟁력이 매우 높은 점에 기인

- 화웨이, 레노버, 샤오미 등 중국을 대표하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기술수준이 가격경쟁력 못지 않게 크게 높아진 것도 작용

<그림 4>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주요업체별 점유율 추이



자료 : Gartner(2014.2)

○ 스마트폰 제조업체 최다 보유국인 중국은 2013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국가기준 점유율 2위로 급상승하며 한국을 빠르게 추격

- 가트너(2014.2)에 의하면 세계 스마트폰시장에서 중국 브랜드 비중은 2011년 약 7%에서 불과 2년 만에 28%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

- 최근 스마트폰시장의 양대 산맥인 삼성과 애플은 혁신속도가 둔화된 반면, 중국업체들은 나름대로 혁신제품을 출시하며 급성장중

· 예컨대 화웨이는 자체 AP 탑재, 오포는 세계 최대 5,000만 화소 카메라 장착, 지오니는 가장 얇은 두께(5.5mm)의 스마트폰 출시등

- 화웨이, 레노버, ZTE, 쿠팰드에 이어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중인 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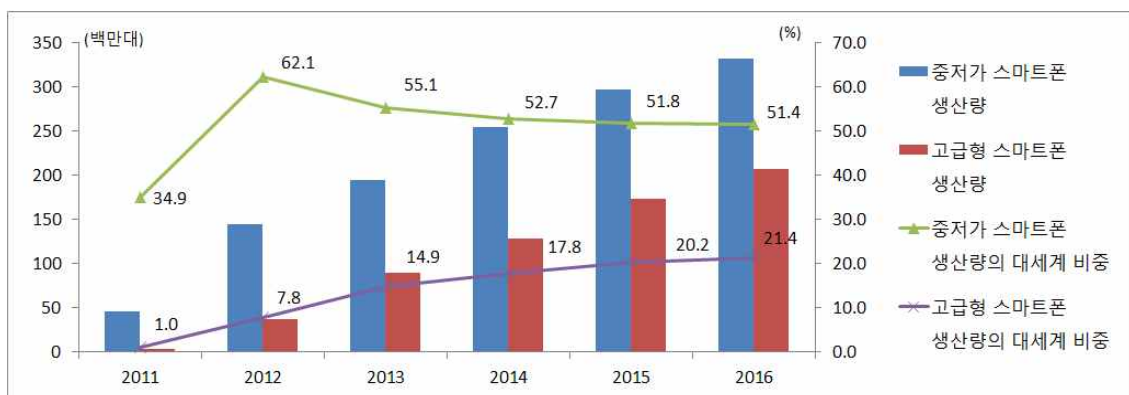
오미가 중화권을 벗어나 금년 2월 싱가포르에 진출하며 글로벌화 시작

- 2014년 1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는 점유율 11%를 기록하며 삼성(18%)과 레노버(12%)에 이어 3위로 도약

○ 스마트폰 후발주자 중국은 현재 성장속도와 중국업체들의 스마트폰 생산 전망 등을 기초할 때, 2016년 이후 보급형을 포함한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 도약이 가능할 전망

- 고급형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중국업체들은 2012년 약 0.4억대에서 2016년 2억대(연평균 53% 성장)를 상회하며 두각을 나타낼 전망

<그림 2> 중국 제조업체의 스마트폰 생산 전망



자료 : Gartner(2012.12) 참조 산업연구원 작성

- 중국 스마트폰은 낮은 브랜드 및 핵심기술력, 지적권 문제 등의 성장 제약요인이 있지만, 아세안 등 잠재성장률이 높은 신흥시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입지 강화가 가능할 전망

○ 중국의 스마트폰 점유율 2위 도약이 자국시장에 기반한 성과라는 점에서, 향후 브랜드 이미지 제고시 세계에의 파급영향은 클 전망

□ 높은 제조역량과 부품조달체계, 정부 지원이 급성장의 배경

○ 중국은 세계 최대 휴대폰 생산지로서, 2000년대 초부터 외투기업들

의 주요 제품을 OEM 생산하며 스마트폰 제조 및 기술력을 축적²⁾

- 중국 휴대폰산업은 통신장비, PC 등 경쟁력이 높은 연관 IT분야와의 시너지 효과, 축적된 OEM 및 산자이(짝퉁)폰 제조 역량에 힘입어 발전³⁾
 - 화웨이와 ZTE는 세계적인 통신장비업체이며, 레노버는 글로벌 PC 강자, TCL과 Hisense는 중국의 대표적인 LCD TV업체⁴⁾
 - 텐위, 지오니, OPPO 등은 주요 브랜드의 OEM, 화이트박스(미브랜드) 폰 및 산자이폰 제조역량을 기반으로 성장

○ 최근 중국 메이저 업체들은 ‘중저가 모델 다양화 전략’에서 점차 벗어나 ‘품질·수익성 강화 전략’을 강화하며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를 확대

- 레노버는 금년 1월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 OPPO, BBK, 지오니 등 중소기업체들도 ‘모방전략’을 낮추고 ‘차별화 전략’을 중시하며 가격경쟁력과 고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출시

○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내 부품 조달체계 구축은 중국 스마트폰산업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 전망

- 중국은 최대 스마트폰 생산지이자 관련부품의 제1차 공급지로서 중국내 스마트폰 주요부품의 내제화 비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
- 중국 스마트폰용 핵심부품은 기술력이 낮고 해외의존도가 높으나, 중저가폰 제조를 위한 주요부품의 중국내 조달이 대부분 가능

2) 중국 현지 연구원에 의하면, 중국의 스마트폰용 부품은 품질면에서 미흡하나, 4~5개월(품질테스트시 8~9개월)이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개발이 가능할 정도로 R&D 속도가 빠른 것으로 평가
3) 또한 미디어텍 등의 저가 칩 솔루션, 무료로 개방된 안드로이드OS,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확산, 소득수준 향상, 자주혁신 역량 증대 정책도 중국 스마트폰 성장세에 기인 판단
4) 화웨이, 레노버, ZTE 등 중국 메이저업체들의 휴대폰시장 진출 시기는 대체로 2011년 이후로 단기간내에 급성장중이며, 신생업체 샤오미(‘10년 설립)는 가장 높은 성장세 시현중

<표 3> 중국의 주요 스마트폰업체의 생산 및 공급사슬 경쟁력 평가

	레노버	화웨이	ZTE	위통	샤오미	OPPO	BBK	TCL	텐위	지오니
생산	●	●	●	●	●	●	●	●	●	●
공급사슬	●	●	○	○	●	○	○	●	○	○

자료 : Gartner(2014.3)에서 발췌 정리

주 : ● 강, ○ 약이며, 글로벌업체를 배제한 중국업체에 대한 평가임.

○ 중국 스마트폰산업은 고기술을 요하는 핵심부품(칩, OLED 등)을 제외한 주요부품(배터리, 케이스, 스피커 등)에서 비교적 높은 경쟁력 보유

- 중국의 모바일 반도체는 현재 경쟁력이 취약하나, 중저가 시장의 성장, 개방형 솔루션⁵⁾, 정부 지원 등으로 성장속도는 빠른 것으로 평가

· 스마트폰 AP의 경우 하이실리콘이 자체개발, 랍칩은 28나노 쿼드코어 AP를 출시, 스프레드트럼은 삼성 피쳐폰용 칩을 공급⁶⁾

<표 4> 애플, 삼성 및 중국업체의 부품공급 주요 현황 및 특징

	주요 공급처	주요 공급부품 현황	주요 특징
미국 (애플)	한국	-메모리, LCD, AP(위탁생산), PCB, MLCC, 배터리, 카메라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핵심 부품의존도 80% 상회 ·한·일·대만 비중 높음 -부품공급처 다변화 추세 ·최근 부품공급망에 중국 업체 비중도 증가 추세
	대만	-LCD, PCB, AP(위탁생산) 등 모바일 부품	
	일본	-메모리, LCD, 터치스크린, 유리기판, MLCC 등	
	미국	-모바일용 반도체(퀄컴, TI) 등	
	중국	-배터리, 스피커, 오디오부품 등	
한국 (삼성)	한국	-메모리, LCD, AP, 카메라, PCB, 배터리 등	-핵심부품의 높은 내재화 비율(80% 전후) -중국, 베트남 등 해외생산지에서의 부품조달 비중이 확대 추세
	일본	-메모리, 이미지센서, MLCC, 배터리 등	
	미국	-베이스밴드칩, AP, 센서 등	
	중국	-배터리, 오디오부품 등	
중국 업체	중국	-LCD, 터치패널, AP, 케이스, 배터리, 스피커, PCB, 카메라, 안테나, 커넥터 등	-중저가폰용 부품은 대부분 중국내에서 조달 가능

5) 개방형 OS 플랫폼인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ARM 기반의 프로세스 솔루션 등이 대표적임.

6) AP(Application Process)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부품으로 보급형 스마트폰의 경우 10% 이상의 높은 원가비율을 차지

대만	-LCD, 터치패널, 베이스밴드, 카메라 등	-고가폰용 핵심부품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수준 ·특히 일본 비중이 높음
미국	-메모리, AP, 베이스밴드, 센서 등	
일본	-메모리, LCD, 센서, RF, MLCC, 코일 등	
한국	-메모리, LCD, AP, 카메라 등	

자료 : 산업연구원 정리

○ 중국은 4G, 차세대 이동통신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및 기업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 한국이 1996년 CDMA 최초 상용화 이후 급성장한 것처럼, 중국도 2010년 독자기술인 TD-SCDMA⁷⁾ 개발로 성장 계기를 마련

· 중국은 3G 이동통신서비스 이후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3G 단말 및 부품산업 발전에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

- 중국은 4G 서비스가 선진국보다 늦었지만, TD-LTE 개발 및 표준을 획득하고 최대의 내수기반으로 기술과 시장주도를 위해 투자를 강화

· 2013~15년 중국 3대 이동사는 약 140만개의 4G 기지국(LTE-FDD 포함)을 구축하고, TD-LTE 네트워크에 3,644억위안을 투자할 계획

○ 중국 정부는 차세대 이동통신 및 단말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투자를 확대

- 2006년부터 11.5규획에 이어 12.5규획(2011~15)등을 통해 전자정보산업 특히 3G 및 TD-LTE 단말분야 육성을 적극 추진

- 5G분야 투자를 위해서 2012년 2월 중국정부(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차원에서 'IMT-2020 프로모션 그룹'을 결성

- 5G 등 차세대 네트워크분야와 신성장동력 분야인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사물인터넷(IoT)분야에 대한 육성 계획을 수립

7) TD-SCDMA는 글로벌 표준(외산업체가 동 기술 적용을 위해서는 별도 투자가 필요한 부담이 작용)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핵심기술 및 산업체인 미흡으로 최근 성장세가 부진한 것으로 파악

<표 5> 스마트폰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중국의 주요 정책 동향

	정책	이동통신 및 단말분야 관련 주요 내용
2006.8	정보산업 과학기술 발전 11.5규획	차세대 네트워크, 광대역무선이동통신, 지능단말,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등에 대한 연구 가속화
2009.4	3G 이동통신업무 규범 (시범시행)	3세대 이동통신업무의 통신 품질 지표, 3세대 이동통신업무의 서비스 품질 지표 규범화
2009	전자정보산업 구조조정과 진흥규획	통신산업(3G, 차세대 인터넷, 디지털TV네트워크 구축 등), 전자부품소재(디스플레이 등), 컬러TV 등 중점 육성
2010	12.5 발전규획과 7대 신흥전략 산업	12.5 기간 동안 3G 기술과 TD기술 발전을 통한 통신 및 연관 산업 발전
2011.7	산업의 핵심기반 기술 발전지침	모바일 스마트 단말기 핵심 기술: OS, 3G 멀티모드기술, 고성능 멀티코어, GPS, 모바일 결제 및 신형 터치 기술
2011.12	공업의 구조전환 및 고도화 규획(2011-15)	TD-SCDMA 고급제품 지원, TD-LTE 등 차세대 이동통신설비와 시스템 R&D 및 산업화, TD-LTE 단말기의 기저대역, RF칩, 응용플랫폼 등 관련산업 발전 촉진
2012.2	전자정보제조업 12.5 발전규획	전자기초소재 및 중요 부속품 12.5규획, 전자전용설비 12.5규획, D-TV 및 가전산업 12.5규획 등 시행
2012.2	IMT-2020 프로모션그룹 결성	중국정부 주도의 5세대 이동통신분야 연구
2012.7	12.5 국가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규획	무선이동통신, TD-LTE 및 4G 설비와 단말, IoT, 클라우드, 첨단통합칩, 센서, SW, 디스플레이 등의 발전전략 명시
2012.8	사물인터넷 12.5 발전규획	2015년까지 총 50억 위안을 투자하여 사물인터넷 핵심기술, 핵심표준 제정, 산업체인을 구축
2013.8	‘브로드밴드 차이나’ 전략 및 실시방안	지역별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의 균형발전,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개선 및 고도화, 응용수준 제고, 산업사슬 완비 등

자료 : 중국공업경제연구소(2013), 산업연구원(2006, 2013), 각종 언론자료 참조

□ 중국내 한국 스마트폰 경쟁입지는 강한편이나, 차별성 강화 필요

- 국내 스마트폰은 중국 시장에서 글로벌 브랜드력, 프리미엄 기술력을 바탕으로 선전 중인 것으로 평가되며, 기업별로 삼성이 1위를 기록
 - 최근 중국 로컬업체들의 스마트폰이 저렴한 가운데 품질과 사양이 높아지면서 중국시장에서 매우 높은 점유율(약 65%)을 시현
 - 한편 중국내 삼성의 브랜드인지도는 1위이나, 인지도가 ‘13년 6월 23.8%에서 ‘13년 4분기 22.5%, ‘14년 1분기에는 20.5%로 소폭 하락 추세

- 중국 스마트폰산업은 경쟁우위 요인인 가격경쟁력이 낮은 기술력을 보완하며 성장했지만, 최근 기술면에서도 상당수준 선진국을 추격
- 중국은 IT융합, SW기술은 여전히 선진국과 격차를 보이지만, 제조 역량을 포함한 HW기술은 빠르게 선진국을 추격한 것으로 판단

<표 6> 주요국의 휴대폰 관련 분야별 기술경쟁력 비교

	스마트폰		이동통신	IT융합
	HW 기술	SW 기술		
미국	100	100	100	100
한국	100	85	93	87
일본	98	90	95	95
중국	90	75	85	75
대만	95	80	88	80

자료 : 학·연 전문가 평가를 포함한 산업연구원의 자체 평가(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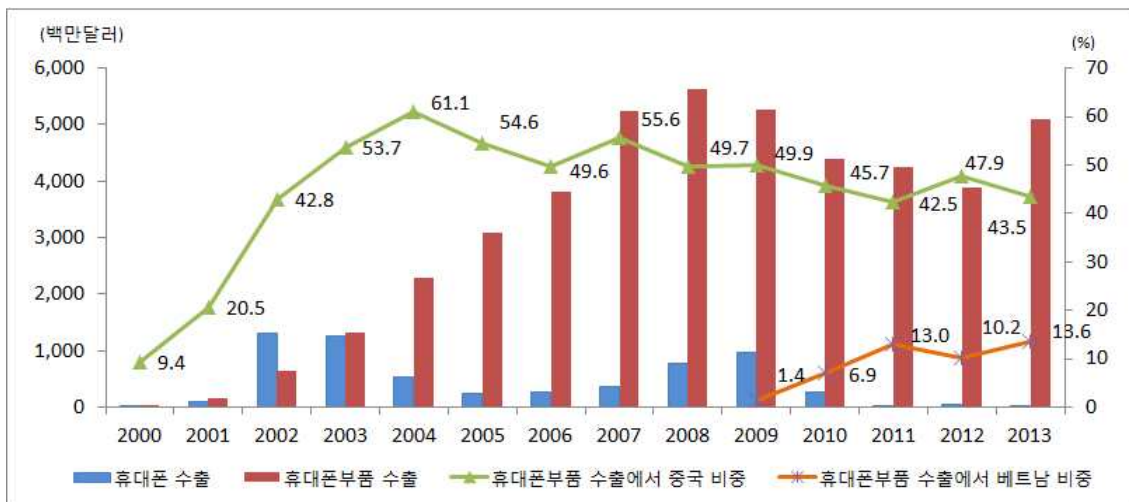
-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고 차기 스마트폰 시장 주도를 위해서는 기술 및 제품 차별화 전략 강화가 시급
- 저렴한 제품의 수요가 높은 중국 등 신흥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고급형 뿐만 아니라 저가형에 이르는 제품 다양화 및 차별화가 요구
- 중국 등 신흥지역의 4G LTE 서비스 본격화에 대응한 선도적·차별적 제품경쟁력 확보와 이를 통한 시장지배력 확대가 필요
- 중국의 지역별로 통신 인프라와 소득수준에 차이가 있는 특성과 소비자 니즈를 고려한 차별적인 제품 개발 및 판매전략을 지속 강화
- 중국 내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낮은 내륙 및 농촌 등 3선 이하 지역⁸⁾에 대한 제품 차별화 및 마케팅 전략 강화도 필요

□ 모바일 핵심부품의 역량 강화와 비교우위 유지 노력 필요

8) 중국 도시는 경제기반, 성장잠재력 등에 따라 1~5선까지 5등급으로 구분되며, 1선 도시는 북경, 상해, 광주, 심천, 천진 등이고 3선 도시는 이제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이 해당됨.

- 국내 스마트폰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핵심부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용 핵심부품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
 -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모바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LCD, OLED 등)의 비교우위 유지와 지능형 융합부품(융합센서, 시스템반도체 등)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중요
 - 핵심부품의 역량 강화는 스마트폰 완제품의 차별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
- 포스트 스마트화 및 초연결 시대에 대비하여 유망 핵심부품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 수출확대를 위한 민·관의 전략적 투자 강화가 필요
- 스마트폰의 해외생산(80% 상회)이 확대되면서 스마트폰용 부품이 전체 스마트폰산업 수출을 견인하고 있어, 완제품을 대체하는 부품수출 확대 전략이 필요
 - 중국 스마트폰산업의 성장이 세계시장에서 국내 스마트폰 완제품의 입지 강화에 부담이 되나, 국내 부품분야는 수출 확대의 기회로 작용
 - 대중국 휴대폰 수출은 2000년대 중반이후 현지생산 비중 확대로 크게 축소된 반면, 휴대폰부품 수출은 2013년 약 51억달러로 확대
 - 최근 베트남 생산 확대로 대중국 수출비중이 감소했지만 중국은 국내 휴대폰부품 총수출에서 44%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 전략지역

<그림 5> 우리나라의 대중국 휴대폰부품 수출 추이



자료 : KITA 무역통계DB, KAIT 통계를 참조하여 KIET 작성

□ 차세대 스마트폰시장 선도 위한 투자 강화, 한·중간 전략적 협력 확대도 모색

- 차세대 이동통신 및 단말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중국 등 후발주자와의 차별적 경쟁우위 지속을 위한 선제적 투자 강화 필요
 - 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시대에 요구되는 웨어러블 스마트기기 등 차세대 단말의 핵심·원천기술과 시장 주도를 위한 전략을 강화
 - 중국은 주요국과 다른 강도로 정부차원에서 미래 유망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민·관의 적극적 대응 시급
- 차세대 스마트 단말분야의 주도적 성장을 위해 HW-SW-서비스 등에 이르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각 주체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
- 이동통신, 주요 부품, 인터넷(예컨대 알리바바, 바이두 등), 모바일 콘텐츠분야 등에서 한·중 간 상호 보완 및 시너지 창출,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확대를 모색
 - 특히 차세대 이동통신분야에서 핵심기술 및 국제표준 주도 등을 위해 한·중 양국간 공동 협력체계 강화도 필요

김종기
(연구위원 · 성장동력산업연구실)
jkkim@kiet.re.kr
02-3299-3106